

카드뉴스 제65호 | 대한민국 법원의 날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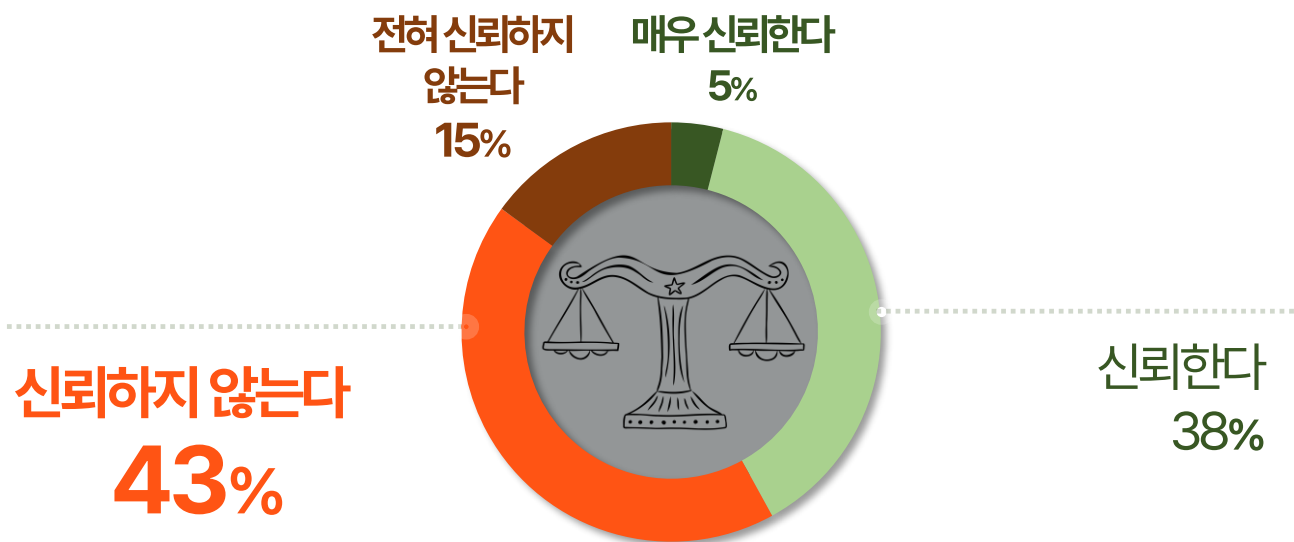
정의의 여신,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높은 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신뢰하지 않아

Q.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전체 1,291명)



남성, 50대 이상, 보수 성향일수록 사법 시스템 불신 강해

A. 응답자 특성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비중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		
남성 (657명)	여성 (634명)	20대 (217명)	30대 (232명)	40대 (266명)	50대 (303명)	60세 이상 (274명)	진보 (269명)	중도 (722명)	보수 (299명)
18%	12%	12%	12%	14%	17%	19%	14%	13%	21%

사법 시스템 불신의 이유로는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 불공정한 법 적용, 낮은 처벌 수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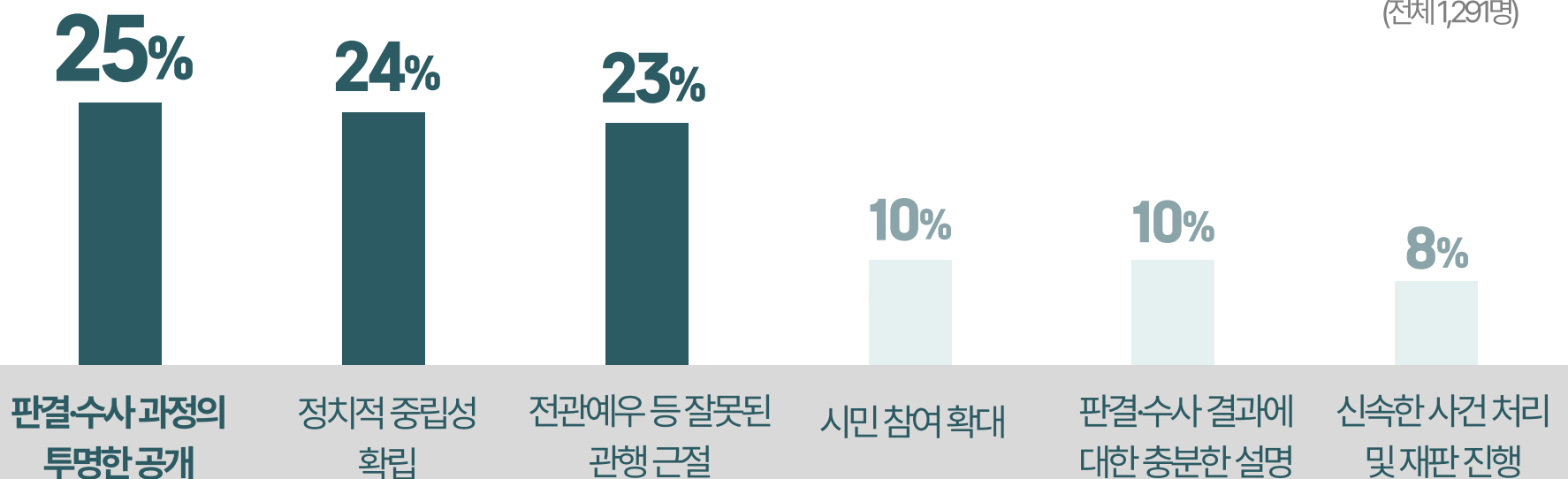
Q. 사법 시스템 불신 이유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 748명)

- ✓ 권력자나 재벌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 유리하게 판결된다고 생각해서 27%
- ✓ 법 적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서 19%
- ✓ 처벌 수위가 사회적 상식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서 13%
-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부패나 비위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13%
- ✓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불투명해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느껴서 11%
- ✓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것 같아서 10%
- ✓ 동일한 사건에 판결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서 7%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수사 과정 투명 공개, 정치적 중립, 불공정 관행 근절 우선돼야

(전체 1,2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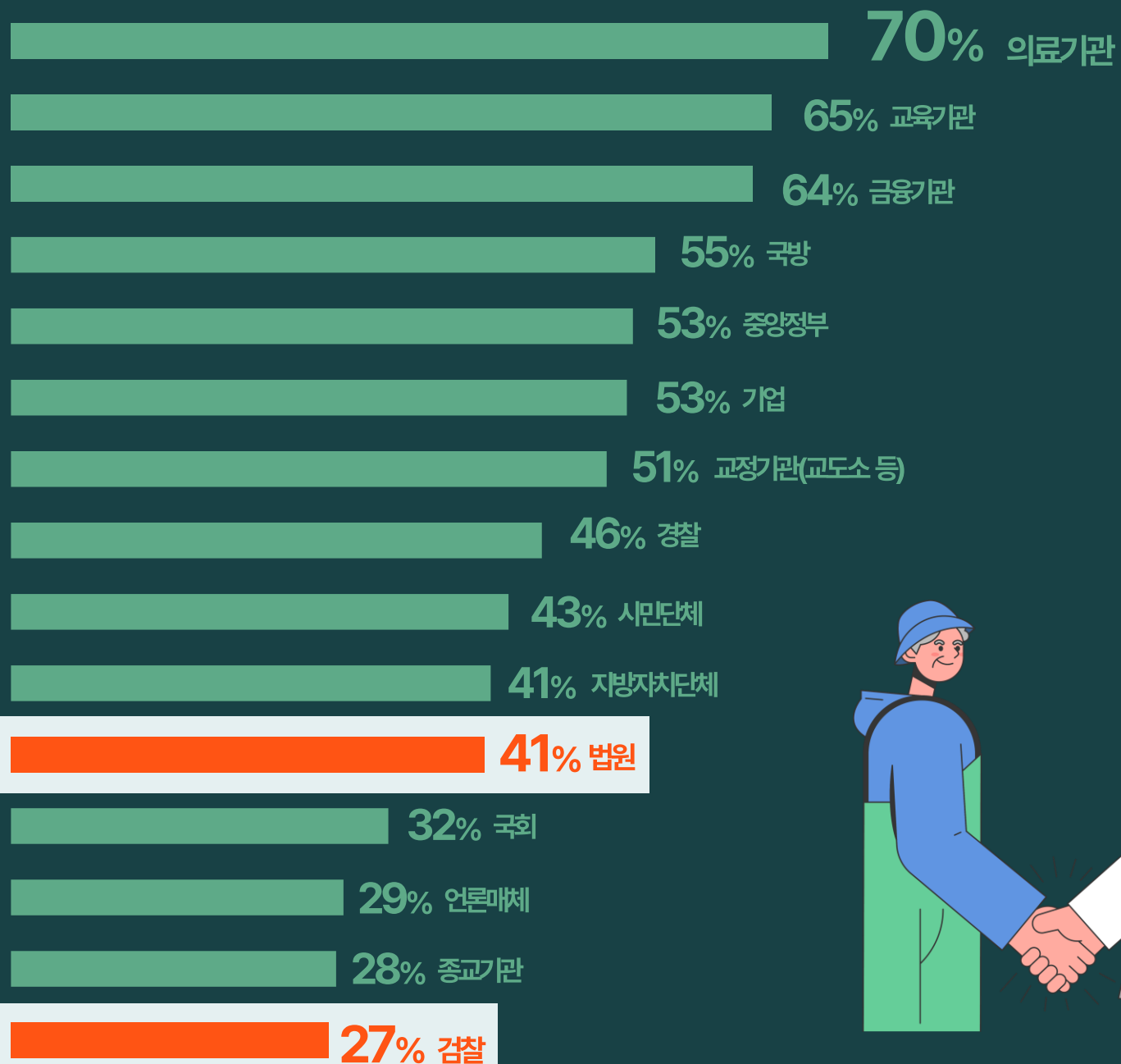


전체 사회기관 평가 중

'법원'은 15개 기관 중 11위, '검찰'은 최하위
사법 기관들의 신뢰 회복 필요해 보여

Q. 각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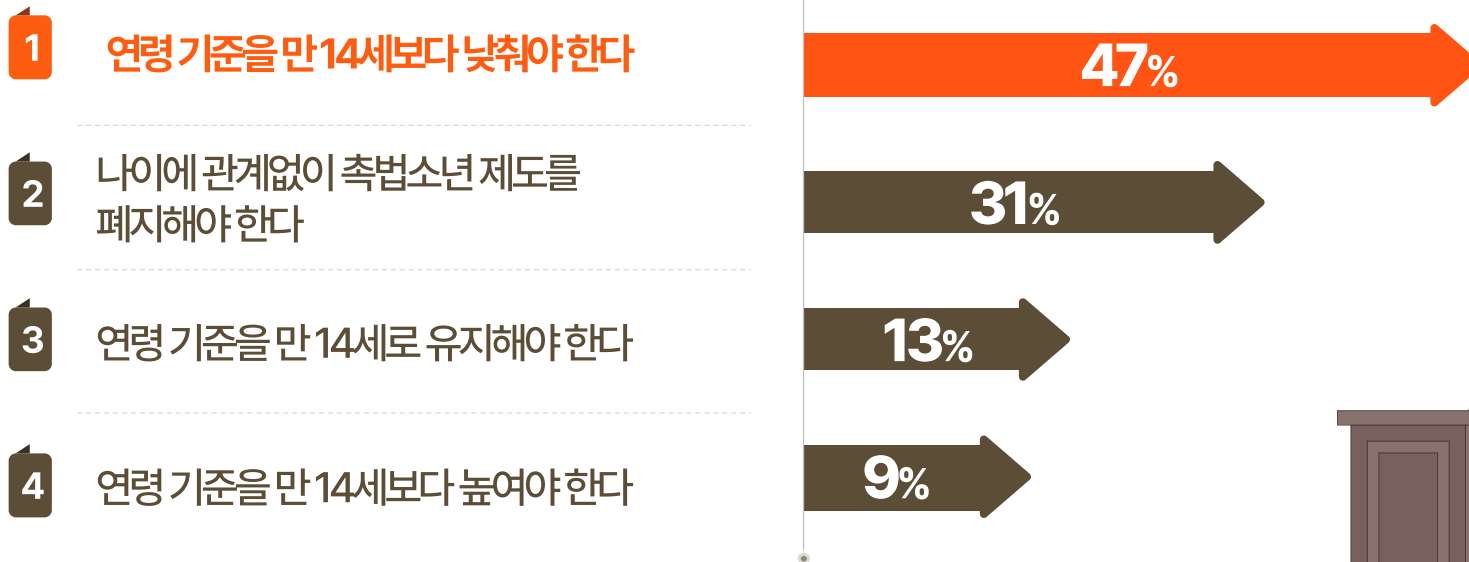
(전체 1,2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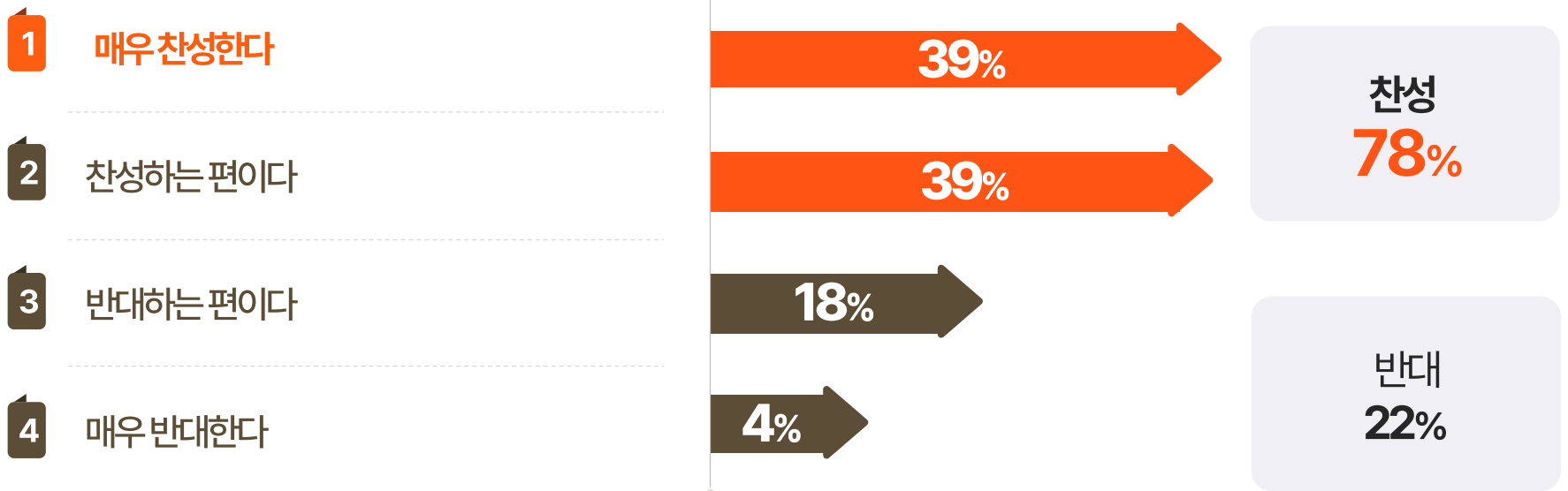
논쟁이 많은 제도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고, '사형' 재집행에 대다수 찬성

Q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사기간

▶ 2025.08.15~17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91명



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Kstat



🏠 <http://www.kstat.co.kr>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 02-6188-6000

✉ admin@kstat.co.kr